

태산 같은 믿음 · 정진이 중요

월운 스님의 가르침



매일 아침저녁으로 예불 올릴때 독송하는 '예불문'의 뜻만 제대로 알아도 바른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안에는 불교의 심오한 철학과 사상이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매일 하는 거지만 예불문의 뜻을 물어보면 정확히 대답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이 예불 올릴 때 그저 아무 생각없이 입가에서만 중얼거리고 말지요. 그래서 나는 신도들에게 예불문의 핵심내용을 자주 설명해 줍니다.

우선 '지심귀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구절입니다. 삼계도사는 육계 색계 무색계 등 3계를 이끌어주시는 선지식이란 말입니다.

육계 색계 무색계는 중생들이 윤회하면서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사생자부는 중생이 태어나는 네가지 방식인 난생 습생 태생 화생으로 생겨난 중생의 자애로운 아버지를 뜻합니다.

'시방삼세 제망찰해 상주일체 불타야중'을 살펴 보면 시간과 공간, 땅과 물 어디에도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은 존재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세상에 부처가 없었더라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이같은 원리를 알면 계율이나 수행을 할 때 이전에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른 신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오염되지 않으면 모두 부처님입니다. 우주 자연은 그대로가 부처이지요. 그러나 때가 묻으면 중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중생인 이유는 불성에 무명이라는 때가 묻었기 때문입니다. 불성이 육체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지수화풍 사대로 형성된 우리 육신은 감각을 느끼는 기관을 갖고 있는데, 이를 통제하지 않으면 제멋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기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좋은 냄새를 맡으려고 하고, 또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찾아 다닙니다.

신도들에게 예불문을 가르칠때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것이 바로 '제망찰해'입니다. 이것은 그물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 등 삼세를 포함해 육지 구석구석 어느 곳이나, 물속 어디든 전체를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그물이 어떻게 무한한 우주공간과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을 모두 지배하고 다스린단 말인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결국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인터넷 아닙니까? 인터넷은 정보망이요 곧 신경망인 것입니다. 이

와 같은 정보망은 전부 그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넷(Net)이 그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지요.

우리들의 몸에도 역시 신경망이 있습니다. 육체의 세포를 봅시다. 세포의 조직이나 모든 분자나 세포는 육각입니다.

물의 분자 또한 육각으로 몇 년 전만 해도 오염되지 않은 물은 육각수라 했습니다. 또한 약국에서 연고 하나를 사서 설명서를 보세요. 거기에는 반드시 육각으로 된 화학기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부처님은 이미 3천년 전에 그들의 원리를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현명하고 위대하십니까?

시대가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신계발의 정도를 표현하는 단위는 1900년대 초반부터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IQ(지능지수)를 사용했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EQ(감성지수)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SQ(영성지수)와 NQ(인간관계지수)가 새로운 척도로 등장했습니다. 이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의 반영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40년만에 우리 사회는 경제적인 부를 축적해 물질이 풍요로워졌지만, 범죄현대는 갈수록 악독해지고 기본적인 인간 윤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질이 풍족해지는 일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공황이라는 예기치 않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마치 방향감각을 잃고 방황하는 뚝단배 같습니다. 빠른 경제성장에 정신적인 성장이 발맞추지 못하고 뒤쳐져 있는 탓입니다.

이런때일수록 불교의 계율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율, 계율 하는데, 도대체 계율이 뭐니까? 경직된 사고로 계율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계율은 분명 불자들이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무작정 계율을 지켜야 하는 것이기에 지킨다는 것 보다 그것의 본뜻을 알고 이해하고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처님이 계율을 말씀하신 것은 화합에 그 근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합은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특히 요즘처럼 물질문명이 발달된 시대에는 부와 명예에 집착하기 보다는 자신의 본분을 잊지 말고 정진하는 것이 바로 계율을 잘 지키는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태산같은 믿음과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정진에 더 비중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법력난사의(法力難思議) 대비무장애(大悲無障礙)'란 말이 있습니다. 글자대로 해석하면 부처님 진리는 헤아리기 어려우며, 부처님의 대자비에는 장애가 없다는 말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넓고 광대무변해서 대자비심으로 실천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법으로는 안되는 것이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여튼 부처님처럼 3천년전부터 미래의 세상을 미리 예견한 위대한 분이 없다는 것만 알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믿고 따르십시오. 그러다보면 성불은 저절로 됩니다.

정려=김주일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74>



'육야경'을 다시 읽는다(2)

'깃발을 보면 수레에 누가 타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남편을 보면 그 아내를 알 수 있다'는 <잡아함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육야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곱 종류의 아내가 그저 아내에게만 강요되는 딱목일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가족들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곱 종류의 아내는 일곱 종류의 부부관계라고 바꾸어 생각해도 그리 심한 억지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부 관계는 배우자에게 전적인 신뢰를 기울이는 사이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는 어머니가 아들을 대하는 것과 같고,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는 아버지가 딸을 대하듯 하는 것입니다.

항상 옆을 떠나지 않고 보살피고 지켜주며 자기 배우자가 집 밖에서 사람들의 업에서 길을 당하지 않도록 노심초사하면 서로 이런 극진한 애정에 지지 않는 부부 사이입니다.

두 번째 부부 관계는 오누이 같은 부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오빠동생 하자'라는 말은 곧 '서로 연인이 되자'라는 뜻이라고 하지요. 실제로 오랜 세월을 살아온 부부를 볼 때 얼굴이 닳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성적인 욕망과 정신적인 신뢰가 가장 아름답게 조화되는 부부 관계가 바로 이 오누이 같은 부부가 아닐까 합니다.

세 번째 부부 관계는 오래도록 사귀어온 좋은 친구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허됨을 드러내놓고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좋은 말로 지적하여 고치게 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속 깊은 친구처럼 배려하고 지켜주는 사이입니다.

'현명한 길 안내자가 객지에서 좋은 벗이요, 정숙하고 어진 아내는 집안에서의 좋은 벗이다'라고 하거나, '어진 아내가 으뜸가는 좋은 짝이다'라는 <잡아함경>의 가르침은 세상을 살아갈 때 끝까지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는 자기 배우자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줍니다.

그 밖의 부부 관계는 좀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느리나 하인 같은 아내의 경우는 아내에게 매우 엄격한 예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집안의 대소사를 책임지고 챙길 수 있도록 남편은 아내를 신뢰

하고 전적으로 권한을 주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예의범절이 깎듯하고 스스로를 얹히 단속하면서도 집안을 깔끔하게 챙기는 안주인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40대 남성들의 심리적 방황을 정신분석학적으로 다룬 흥미로운 내용의 기사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기사 속에서 정신과 전문의는 '가장 바람직한 부부의 모습은 한창 연애시절엔 러브(Love) 파트너였다가 결혼 후 시간이 흐르면서 퍼밀리어(Familiar:익숙한, 친밀한) 파트너였다가 소울(Soul) 파트너로 진화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부가 사랑해 결혼했어도 퍼밀리어 파트너로 발전하지 못한다. 가족이 됐으나 남편과 아내가 직장 일이나 가사 노동 등으로 대화가 줄어들고 아이 양육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서로 정서적인 고립감을 갖게 된다. 이로써 정서적 이혼상태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뉴스메이커>682호).

사람은 달라지고 변하게 마련인데 사랑으로 맺은 남녀 관계가 처음 마음 그대로 백년해로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부부 간에 그 관계의 빛깔이 달라지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라는 것도 위의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중에 '소울 파트너'는 불교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길동무, 동반의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단순히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겪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함께 추구해 가는 부부관계입니다.

암제처라는 여인이 남편과 잠시 친정에 들렀는데 마침 부처님께서 그 집에 공양하려고 오셨습니다. 온가족들이 공양을 마친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 나아갔지만 암제처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외출 중이었던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부가 늦게나마 나란히 법석에 참여하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사자후요의경)

육야의 급선무는 당장 제 자신의 마음속에서 아집과 교만을 털어내는 일이었기에 하인 같은 아내가 되겠다고 맹세하였지만 암제처는 법을 듣는 자리에 배우자와 함께 나아갔습니다. 21세기의 육야들은 이렇게 부부관계를 키워가야 하지 않을까요?

■ 이미령(동국역원원 역경위원)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법요집 · 기초교리집 과도 특별찬정 보급!!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요집 · 삼귀의 · 천왕행니다 · 반야심경 · 입정 · 청법가 · 법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근 · 발원 및 축원 · 사찰서원 · 산회가 · 기타청불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교리 1. 불교란? 2. 부처란?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5. 사찰경내 예법 6. 합장과 반배 7. 고두례 8. 예불문 9. 삼보 10. 삼귀의 11. 삼범인 12. 삼업 13. 삼학 14. 신도요계 15. 사성제 16. 사성법 17. 십이인연 18. 육바라밀 19. 팔정도 20. 보왕심매론 |
|--|---|--|

법회의 일반적인 순서와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초교리까지도 큰스님의 감수로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 특별보급가 :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저크지
- 구성 : 과도(법요집, 기초교리, 양면인쇄) 1개 결이대, 지시봉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02)2004-8219,8220
국내·해외불교서적, 교양도서 http://www.yosiamun.com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테이트형강판, 슬라브, 사철(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 칼라지붕공사